



정보

© 2008년도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및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안내

구분	교육과정명	일정	주관	장소/기타	문의전화
보수교육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관리 -금연과 비만	10.15-16	대구	대구 제이스호텔 2층 사파이어홀 (구 동대구호텔)	054-479-0245 (이정숙총무)
		10.23-24	중앙회	서울여성플라자	02-716-9030

중앙회 소식

◎ 제3회 산업전문간호사 시험

제 3회 산업전문간호사 시험이 2008년 7월 20일 신양중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올해가 마지막 특례제도로써 총 15명이 응시하였으며, 필기와 실기(8월 10일 연세대 의대에서 실시)모두에서 전원 합격하였다. 이로써 산업전문간호사는 2006년 73명, 2007년 15명, 2008년 15명으로 총 103명이 배출되었다.

◎ 이사회의 개최

2008년 7월 22일 마포트라펠리스 2층 회의실에서 제 2회 이사회의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이사 임원을 11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기로 하여 신임임원(조동란 이사, 한현미 이사, 박현숙 이사)의 참석을 축하하고, 향후 협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부탁하였다.

◎ 보건안전센터 관리감독자 금연교육 실시

협회 부설 보건안전센터 부산지부와 경기남부(수원)지부에서 중·소규모사업장 보건업무 담당자(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 지부는 7월 9일에 부산 안심생활지원사업단 교육장에서 6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수원 지부는 9월 24일 경기남부산업안전 기술지도원에서 56명이 수료하였다.

한국산업간호학회 소식

◎ 학회지 원고 모집

제17권 2호(11월 발행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업간호학회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논문투고 바랍니다. 산업간호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sohn.or.kr>)의 <논문투고신청>에 원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숙영 출판이사(을지대 간호학과 교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2-259-1717, ksy@eulji.ac.kr)

◎ 학회 회원가입 안내

학회 가입원서를 학회 홈페이지(<http://www.ksohn.or.kr>)의 학회소식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혹은 이메일로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장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김영임 교수

전화 : 02-3668-4704 Fax: 02-3668-4704 E-mail : young@knou.ac.kr

총무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01번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최은숙 교수

전화 : 053-420-4936 Fax : 053-421-2758 E-mail : eschoi2007@knu.ac.kr

평생회비 200,000원(년 2회 분납 가능), 개인연회비 10,000원, 기관연회비(도서관) 100,000원
예금구좌 : 농협 1165-01-068015 / 예금주 한국산업간호학회

노동계 소식

◎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홈페이지 개설

- www.happybalance.kr, 7월 1일부터 개설 -

7월 1일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등 일반 국민들이 일·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해피밸런스(www.happybalance.kr)가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사례 등에 대한 내용도 있어 여성고용정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7월 중에는 드림미즈(www.miz.co.kr), 애플도도(www.appledodo.co.kr) 사이트와 병행하여 최근 개정된 정책 내용에 대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며 추첨을 통하여 5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7.19(토)에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개최하는 청계천 잡페어(JOB FAIR) 행사에도 부스를 설치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배우자 출산휴가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 의: 노동부 여성고용팀 박 영 (2110-7294)

◎ 여성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일자리 정보망 개설

여성 Work-net(<http://women.work.go.kr>)에 7월 15일부터 개설

7월 15일부터 단시간근로(파트타임)를 원하는 기업과 여성구직자들이 구인·구직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성 Work-net에 '단시간근로(파트타임) 인재·채용 정보'가 개설된다.

여성구직자가 이번에 개설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채용정보를 방문하면 실시간 채용정보를 비롯하여 업종, 직종, 지역, 고용지원센터별로 단시간 근로에 대한 다양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인재정보 방문을 통해 실시간, 직종, 지역, 고용지원센터, 전공계열별로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일자리 정보망 개설로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월에는 Work-net에도 단시간근로(파트타임) 일자리 정보망이 개설되어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모든 구인·구직자들이 구인기업의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단시간 근로 일자리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적시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문 의 : 노동부 여성고용과 박희경 (6902-8475)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로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사업장내의 자율적 위험관리 활동에 기반한 “안전문화 인증제” 도입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의 실효성 제고

노동부는 법규 이행지도 등 기존의 재해예방 활동과 기법으로는 0.7%대에서 정체 중인 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실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 하에 사업장내 자율적 위험관리 활동

의 지원·확산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건문화 인증제”의 도입 및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중심화 등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는 사업장에서 위험을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자율 위험 관리의 정도, 안전보건의식 수준, 산재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asic, Advanced, Best’ 등 단계별로 인증하되, 안전공단·재해예방단체 등의 컨설팅을 통하여 상위단계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시범실시와 보완을 거쳐 2010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증제 시행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위험관리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자료의 개발 보급과 기술지원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의식제고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작업위험성 평가·관리 등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개편하는 한편,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제를 내년부터 폐지하여 사업장에서 스스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평가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문화 증진을 위하여 중앙·지방단위의 추진체계 정비와 노사단체장 초청간담회 등을 통한 사회주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 기본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산업안전 UCC 콘테스트, 사이버 안전 퀴즈대회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분위기 확산도 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추진방안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보건문화증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강조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서울선언서”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는 노사정이 안전보건문화에 대한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안전한 직장, 건강한 근로자를 만들기 위한 선진 산업안전보건문화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 문 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최종선 (6922-0913)

◎ 심각한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 오는 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끼임)사고 예방조치 위반은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 전도, 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당국은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 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 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산안법 위반사업장 조치기준 강화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일선 관계자들과 오랜 협의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서,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계도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준수 노력을 주문하였다.

※ 문 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이형근 (6922-0947)

◎ 포름알데히드·노말핵산 등 직업병 위험물질 특별관리

- '09년부터 허용기준 초과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노동부는 발암성물질 등 인체에 특히 유해한 직업병 위험물질에 대하여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 시행을 통하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용기준”은 규정된 노출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 하고 있는 “노출기준”과는 달리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노동부는 허용기준을 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질 종류와 그 허용 기준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8. 9.18(목) 공포하고 내년 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사업주는 허용기준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노출농도가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

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면제 된다.

허용기준 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만으로는 직업병 위험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은 총 13종으로,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등 6종과 인체장해물질인 납과 노말렉산 등 7종이다. (List 첨부)

노동부 관계자는 “허용기준 제도의 시행으로 작업장 내 화학물질 관련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사업주의 관심이 커짐으로서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 의 :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이병재 (6922-0953)

◎ 산재환자 직업재활훈련 조기 실시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산재환자의 장애등급이 확정되기 전에도 장애판정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애등급 1~9급인 사람에 대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업재활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2회 이상 산재로 보상받는 사람의 최고보상수준을 장애 1등급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141,713원)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현재에는 2회 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경우 각 재해로 인한 급여를 합한 금액이 최고수준을 넘어도 이를 모두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보상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조병기 산재보험과장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직업복귀 촉진을 유도하고, 2회 이상 산재로 인한 보상한도를 정함으로써 과다보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문 의: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호병 (2110-7222)

산업보건계 소식

◎ “중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돕는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15만 개소에 안전보건 책자 보급 -

○ 안전보건 기반이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돕기 위한 정보가 제공된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민기)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5만 개소에 재해예방 정보를 담은 ‘Safety & Health Guide’책자를 제작 보급한다.

○ ‘Safety & Health Guide’는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기타의 사업 등 4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과 예방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전담조직이 없는 등 경제적 기술적 역력이 부족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실정이다.

- 지난 '07년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68,774명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사망자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 50인 미만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

< 단위 : 명 >

구분	재해자(전체대비 점유율)	사망자(전체대비 점유율)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68,774(76.3%)	1,432(59.5%)
전체 산업재해	90,147	2,406

- 재해발생 형태별로는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감김이나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전도, 추락, 충돌의 순으로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 발생형태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현황('07년) 〉

〈 단위 : 명 〉

재해유형	총계	감김·끼임	전도	추락	충돌	작업관련질병 (뇌심 등)	낙하·비래	절단,베인,질림	기타
재해자수	68,774	12,788	12,505	9,449	9,477	5,909	5,390	4,072	9,184
점유율(%)	100	18.5	18.1	13.7	13.7	8.5	7.8	5.9	13.3

○ 'Safety & Health Guide'는 이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협착(감김·끼임), 전도, 추락, 충돌 등의 다발성 재해 위주로 재해원인과 예방 대책을 수록했으며, 4개 업종별 특성에 따른 예방정보를 제공한다.

- 제조업의 경우 협착, 추락 등의 재해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는 추락, 붕괴, 충돌을,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는 안전운행방법과 밀폐 공간 안전대책을, 기타업종에서는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 공단은 'Safety & Health Guide' 책자를 각 업종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건설업종의 경우에는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이 실시하는 사업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시 함께 제공된다.

- 업종별 제공대상 및 수량은 제조업 10만 개소, 건설업 2만 개소, 운수창고통신업 2만 개소, 기타의 사업 1만개소이다.

◎ 삼산화안티몬에 의한 피부질환 발생 - 직업병발생 경보(KOSHA Alert) 발령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삼산화안티몬(Sb_2O_3)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부질환 (이환 근로자 7명)에 대한 조사결과 삼산화안티몬 노출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고 직업병 발생 경보를 발령하였다.

- 삼산화안티몬(Sb_2O_3)은 백색의 결정형 가루 형태로 플라스틱, 페인트, 접착제, 고무제품 제조 및 섬유코팅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삼산화안티몬은 눈, 피부, 점막, 기관지에 강한 자극을 주며 피부염을 흔히 일으키며 비염, 진폐증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철에 피부염(농포, 구진 등)이 더욱 많이 발생한다.

- 원광석으로부터 삼산화안티몬을 제조하는 경우 함유된 비소 및 납에 의한 영향은 동물 실험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람에게서는 발암성이 미확인되어 현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의심물질(A2)로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용 보호구(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한 후 작업하고, 작업 중 또는 종료 후 몸(피부)을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하며, 질환 발생 시는 노출을 중단하고 산업의학 전문의와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회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산재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훈련경진대회 개최한다.

■ 공모주제 : 대국민 안전보건교육용 교안

【공모분야】

- 산업안전 · 보건 · 건설분야
- 일반안전(안전문화 · 가정 · 교통 · 공공안전)

■ 공모기간 : 08. 8. 4 ~ 08. 10. 28. (3개월)

■ 참가자격 : 참가자격 제한 없음

- ◇ 대한민국 국민 모두 참여 할 수 있음
 - 일반인, 주부 및 대학생, 재해예방단체 및 시민단체
 - 산업안전공단 직원 및 외래강사

■ 제출서류 : 교안요약서 및 교안

- 교육원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제출 (<http://edu.kosha.net/>)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시상내역

구분	상금	훈격	인원	비고
대상	2,000,000원	이사장상	1	
최우수상	1,000,000원	교육원장상	3	
우수상	500,000원	교육원장상	4	분야별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지급

■ **예비심사 : 11월중**

■ **발표대회 및 시상 : 11월말**

■ **유의사항**

-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인용문 및 인용자료 등은 반드시 표기

■ **연락처 및 담당자**

- 산업안전교육원 교육지원실, 황순동 (032-5100-931)

◎ **세계는 지금 - 최신 산업안전보건 동향 제공'**

산업안전공단, 121개국 297개 산업안전보건 최신 정보 소개

○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씩 늘고 있는 유럽연합의 근골격계 질환자, 멕시코보다 10배 높은 임금으로 늘고 있는 미국의 이주 노동자 문제, 사망재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등 전 세계 산업안전에 관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노력을 담은 최근 동향집이 제공된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지난 6월29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열린 세계산업안전보건 서울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세계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최근 동향집'을 발간하고 온라인을 통해 관련내용을 보급한다.

○ 이 동향집은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121개 참가국에서 발표한 총 297개 주제에 대해 발표된 주제별로 핵심 내용을 간추린 요약본이다.

- '작업환경변화가 근로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6개 주제와, '미국의 이주 건설노동자' 등 기술세션에서 발표된 41개 주제, 그리고 '두바이 초고층 빌딩의 안전경영 시스템' 등 심포지움에서 발표 및 소개된 250개의 주제들에 대한 요약내용이 담겨져 있다.

○ 또한, 세계대회 기간 중 세계 각국의 노사정 대표 46명이 채택한 지구촌 산업안전보건 현장인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 전체 내용과 함께 주요 행사내용을 담은 화보를 제공해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의의와 성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 '세계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최근 동향집'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kosha.or.kr>)의 팝업창을 통해 제공되는 한편, '정보마당' 코너의 '세계대회발표자료집'에서도 국문으로 된 요약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영문으로 된 발표 전문을 함께

제공한다.

○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동향집은 관련업종의 최신 안전보건 예방 기술을 제공하는 기회이자, 국가별 안전보건 전략 및 추진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담 당 : 안전기술국 정정환 차장 T E L: 032-5100-603
- ▶ 홍보팀 : 심연섭 차장 T E L: 032-5100-671

◎ 2008 대한산업보건협회 주최 제1회 산업보건학술제 안내

제1회 산업보건학술제가 2008년 11월 20일 ~ 21일까지 대한산업보건협회 주최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산업보건 관련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산업보건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산업보건학술제는 산업보건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과 토론회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공모요강]

■ 공모주제

- 산업보건 관련 학술 또는 제도 발전에 관한 논문
- 산업보건 발전,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한 공적 사례

■ 공모대상

- 2005년 1월 이후 지명도가 있는 산업보건 관련 국내·외 학술지 등 매체에 수록된 논문
- 2005년 1월 이후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산업보건 발전 또는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한 사례

■ 부상

- 해산산업보건학술 대상 1명(팀) : 상금 1000만원 및 상패
- 해산산업보건학술 우수상 2명(팀) : 상금 각 500만원 및 상패
- 산업보건 공로상 1명(팀) : 상금 500만원 및 상패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응모방법

- 제출기간 : 2008년 8월 31일(일)

- 제출방법 : 본인 또는 추천인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논문 : 이력서 1부, 논문 1부, 논문 요약(A4 14매)1부, 논문 수록 학술지 내용 증명 1부, 추천자 또는 추천기관장 추천서 1부(추천이 있을 경우)
 - 공적사례 : 이력서 1부, 공적 내용 및 증거 자료 1부, 공적요약(A4 14매), 추천자 또는 추천기관장 추천서 1부(추천이 있을 경우)

■ 심사방법

- 심사위원 : 산업보건학술제 심사위원회

■ 수상작 발표

- 발표 :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www.kiha21.or.kr)
- 시상일 : 2008년 11월 20일

■ 연락처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0-32 혜산빌딩 4층

Tel:02-586-2412 Fax:02-585-1584 Email: pr@kiha21.or.kr

◎ 산재 남성 줄고 여성은 늘고

- 작년 산재여성 1만5447명... 6년새 3%P 증가 -

여성 근로자의 산업 재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상당수는 임신과 출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9만 230명 가운데 여성근로자는 1만 5447명으로 전체의 17.1%에 이른다.

이는 2006년 1만 5130명(16.8%),2005년 1만 4037명(16.4%),2002년 1만 1457명(14%) 등과 비교하면 최근 6년간 3% 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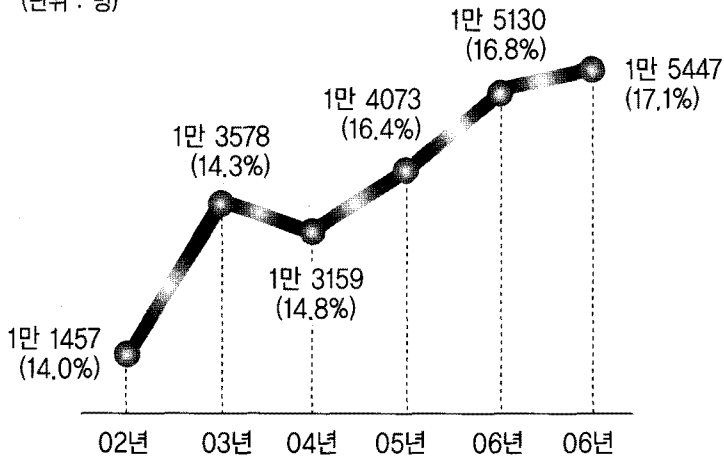
이에 비해 남성 근로자의 재해자 수는 지난 2003년 8만 1346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7만 4700명까지 줄어드는 등 매년 재해자수가 줄어들고 있어 대조적이다.

특히 여성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임신과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성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연구동향에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 화학물질 취급여성 근로자 489명(61개사) 가운데 36.6%만이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재해 추이

(단위 : 명)



더구나 위험성은 TV나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6.8%인 반면 사업장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7.3%에 불과했다.

홍 교수는 “여성 근로자에게 악영향이 우려되는 생식독성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정립과 함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 산부인과 검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서울신문 2008-09-13 10면

간호계 소식

◎ 간호사들 "직원에서 CEO되는 길 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따른 재가시설 창업 높은 관심

“제도 시행 초기, 아직은 좀더 지켜보자” 일단 관망세

[청년의사] 기사입력 2008. 7.21 7:05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

그러나 아직까지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의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재가요양시설 창업에 뛰

어드는 간호사는 많지 않은 실정.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개최한 ‘간호사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교육’에는 신청자들이 몰려 모집 정원(150명)을 200여명으로 늘려야 할 정도로 간호사들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특히 이틀간 진행된 창업교육에는 이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한 간호사들도 40여명이나 참석해 시설 경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열의를 보여.

간협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오는 9월과 10월에도 창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처럼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간호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간호사들은 창업을 주저.

이틀간의 창업교육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간호사들에게는 ‘기회’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여.

간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환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과 자금 등을 창업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꼽아.

또한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때문에 일단 창업 상황을 지켜보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뒤 창업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가 높아.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여서 창업에 대한 불안감이 크긴 하지만 ‘창업 대열’에 동참하는 간호사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교육을 마련한 간협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여서 간호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도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창업에 뛰어드는 간호사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봐.

그는 “간호사들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보다는 CEO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간호사들은 병원 등에 소속 돼 직원으로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시설을 직접 설립해 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메리트가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해.

최근 '그린힐 홈케어'를 창업한 조혜숙 간협 창업특별위원장은 "지금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오픈해야 경쟁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다"며 "고령화시대는 간호사를 위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싶다"고 창업에 대한 간호사들의 기대심리를 대변.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 2020년 이후 간호사 공급과잉

- 간협 "유휴 간호사 활용방안 마련해야" -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 속도를 30배가량 앞서고 있으며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경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와.

이에 따라 최근 일고 있는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보다는 유휴 간호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면허를 등록한 간호사수는 23만 73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956명이 증가. 또 간호사는 매년 5% 이상 증가해 인구 증가율 0.3%와 비교하면 16.7배 이상 크게 웃돌아.

특히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간호사 증가율은 488%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은 16.8%로 나타나 지난 28년간 간호사 면허자 증가율이 인구증가속도를 30배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또 이 같은 증가율은 의사 면허자 증가율인 321.8%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면허자 증가수를 각각 비교하더라도 의사의 경우 7만2615명이 늘어난 반면 간호사는 19만 7024명이 증가, 의사 면허자보다 간호사 면허자가 2.7배 높아.

이와 함께 올해 간호대학 입학생 수를 480명 늘린데 이어 내년에 970명 늘릴 경우 1980년과 비교해 2015년에는 간호사 증가율이 727.3%(33만4000명), 2020년에는 900.1%(40만4000명) 늘어나 우리나라 평균인구 증가율을 크게 뛰어 넘어설 것으로 예측.

뿐만 아니라 202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1만3000여명이 배출되는 만큼 간호사 공급 과잉이 우려.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 전문간호사 10개 분야 938명 배출

간호평가원, 최종 합격률 93.3%

제5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10개 분야에서 938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

한국간호평가원(원장·서순림)은 제5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

최종 합격률은 93.3%로 나타내, 1차 필기시험에는 1057명이 응시해 938명(88.7%), 2차 실기시험에는 953명이 응시해 938명(98.4%)이 합격.

2차 시험 응시자에는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올해 실기시험에 재 응시한 인원이 포함.

분야별 합격자와 합격률은 다음과 같아.

▲가정 42명(96.6%) ▲감염관리 49명(91.2%) ▲노인 455명(91.8%) ▲마취 7명(100%) ▲산업 15명(100%) ▲응급 42명(88.5%) ▲정신 64명(100%) ▲종양 85명(92.4%) ▲중환자 96명(93.6%) ▲호스피스 83명(98.8%)이다.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jsk6931@dailymedi.com)

◎ 전문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시행규정을 지난 해 개정해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를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교육내용은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근거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심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전문간호사가 실제 수행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 1시간 당 1평점으로 인정되며 전문간호사 보수교육프로그램은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다.

[간협신보] 기사입력 2008. 7. 3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초·중·고 '보건교과' 신설

초등 필수 - 중등 선택과목으로 운영.

교과부, 보건과목 개설방안 제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2009년 3월부터 초·중·고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

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후속작업으로 마련된 방안으로, '보건교과'를 초등학교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뤄야 할 내용으로 △건강의 이해와 건강 생활 △질병의 예방과 관리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 △소중한 성과 건강 △정신건강 △사회와 건강 등 6개 영역을 제시했다.

[간협신보] 기사입력 2008. 7. 17

김경원 기자 (kwkim@koreanurse.or.kr)

보건의료계 소식

◎ 복지부, 전염병 예방법 전면개정 추진

법률명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이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8월 22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 간다”고 8월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 질환예방법을 통합, 법률 명칭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해.

또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일부 변경 △A형간염을 종전의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도 지정 전염병에서 제3군으로 △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 관리 대상인 기생충 감염병을 제5군 감염병으로 정해.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를,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명령을 신설했으며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해 사전대비를 강화하도록 해.

또한 감염병 환자와 관련해서는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로 개념을 전환하고, 복지부

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 검진·치료를 실시하도록 해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 연말부터 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인터넷 기반으로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산전 진료 및 검사 비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져선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전채희 장관의 뜻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반 사업에 연간 1천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신생아가 49만5천명이므로 임신부의 숫자를 연간 평균 60만명 정도로 추산하면 1천3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85만원으로, 분만 비용이 평균 115만원, 산전 진찰비용이 평균 70만원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산전 진찰비용의 70%(48만6천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인 것으로 조사돼 진찰비용을 지원할 경우 임신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이 17만원으로 나타난 만큼 매달 13만5천원 정도

가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leslie@yna.co.kr

◎ 서해안주민 체내 카드뮴, 타 지역의 2배

- 환경부 '허베이 호 원유누출사고 민관조사결과', 향후 9000명 지속 조사할 것 -

지난해 말 허베이스피리트 호 원유누출 사고지역 주민들에게서 체내 중금속 농도가 30~67%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들이나 방제작업 자원봉사자들에게 심신 건강 이상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질병관리본부·태안보건의료원 등 공공기관과 환경보건포럼, 단국대, 고려대, 산재의료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민간전문기관,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한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며 3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와 민간기관·시민단체들은 서해안 인근 주민과 자원봉사자, 어린이와 임산부, 영유아 등 3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소변시료를 분석해 체내의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다중방향성탄화수소(PAHs) 등 유해화학물질을 검출하는 조사를 수차례 걸쳐 벌인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해안 인근 주민들 체내의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 주민들의 체내 납 농도는 1.11마이크로그램 크레아틴($\mu\text{g}/\text{gcrea}$, $\text{g} \cdot \text{crea}$ (그램 크레아틴)은 소변의 농축·희석정도를 감안한 체내 물질 농도단위)인데 비해 서해안 주민들의 체내 납은 $1.49\mu\text{m}/\text{g} \cdot \text{crea}$ 으로 나타났다. 체내 납 농도는 방제작업에 직접 참여한 주민이 $1.55\mu\text{g}/\text{gcrea}$ 로 주민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다.

체내 카드뮴 농도도 대조군이 $1.22\mu\text{g}/\text{gcrea}$ 인데 비해 서해안 주민들은 $2.03\mu\text{g}/\text{gcrea}$ 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서해안 주민들의 체내 수은 농도 역시 $0.59\mu\text{g}/\text{gcrea}$ 로 대조군($0.39\mu\text{g}/\text{gcrea}$)보다 다소 높았다.

환경부는 원유누출 사고지역 어린이들이 집·학교에서부터 오염바닷가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체 자각증상을 더 많이 호소했고, 원유누출 지역 가까이에 사는 임산부들이 멀리 사는 임산부에 비하여 신체 자각증상호소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65%이고, 78%에서 우울증이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 남자에 비하여 10%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유류누출지역 어린이는 다른 지역 어린이에 비해 우울증, 불안증이 현저히 높고 임산부도 누출 지역에 가까이 사는 경우가 멀리 사는 경우에 비해 신체 자각증상호소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이달부터 서해안 인근 9000명을 대상으로 △생체 중금속 노출수준 △유해화학물질 노출수준 등 항목에 대해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머니 투데이 황국상 기자〉

◎ 흡연율은 하락, 담배 매출은 증가

흡연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담배 회사는 별로 울상이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었지만 비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져 수입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월 말 흡연율은 21.9%였다. 2004년 30.4%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흡연자가 하루 피우는 담배 양도 지난해 18.2개비에서 6월 말 17.1개비로 줄었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국내 담배 판매액은 702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월 판매액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1월 이후 처음이다. 1~6월 월간 담배 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0% 늘어났다. 올 한 해 담배 판매액은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 담뱃값이 오른 데다 흡연자들이 타르 함량이 적은 순한 담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저타르 담배는 대부분 한 갑에 2,500원으로 비싸다.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 지자체 출산장려정책도 개성시대

□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정리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06년

부터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은 87개 사업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출산 축하금 지원이었다.

○ 지자체 자체사업은 '0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철분제(영양제)지급 등 임신 지원분야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임신(29%) → 양육(24.9) → 출산(23.6) → 인식개선(5.5) → 결혼지원(3.1) 순

○ 출산축하금은 11개 광역 및 149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철분제(영양제) 지급(132개 지자체),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97), 임신부 산전 검사비 지원(78) 순으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다자녀가정에 발급하여 각종 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우대카드제는 16개 광역지자체 모두 실시중이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02-2023-8481, 8488

◎ 한국인 수명 79.1세 · · · OECD 평균 넘어서

- 자살 · 뇌혈관질환 사망률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79.1세로 OECD의 평균수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민 스스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4%로 OECD 평균인 68.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2배 높았으며, 암에 대한 사망률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3.5명과 77.0명이었다.

보건의료 비용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간협신보] 기사입력 2008. 8. 7

김경원 기자 (kwkim@koreanurse.or.kr)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건강수명을 72세로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6~2010년) 중 올해 중점 추진할 실행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생활실천 확산(금연·절주·운동·영양)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암관리·고혈압·당뇨병·전염병관리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모성보건·영

유아보건·노인보건·근로자 건강증진·학교보건) △건강환경조성(건강 형평성 확보) 등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로 수립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계획으로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2020 수립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간협신보] 기사입력 2008. 7. 24

김경원 기자(kwkim@koreanurse.or.kr)

